

기업 사회공헌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시지사 건이강이 사회봉사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맞는 봉사프로그램 개발

새터민, 만성질환자 대상 프로그램 및 노인건강운동 실시



단장 정홍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시지사(지사장 정홍식)는 건이강이 사회봉사단(단장 정홍식, 간사 정관중)을 조직해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현재 32명의 직원중 30명이 1구좌당 1천원씩 10구좌 이내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들이 모은 금액의 80%를 지원하는 금액을 포함해 사회봉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분기별로 실시하는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포상금 120만원중 25%인 30만원을 사회봉사단 기금으로 기탁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는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장질집의 집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난 시간에 방문을 청소와 빨래를 하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있다. 또 행복도...

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신음동 소재 결혼식장 및 독거노인 세대에 반찬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이제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 포천시 신북면 소재 남사리의 집을 방문해 이곳에 살고 있는 장애우와 노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울릉도서민 사회복지 분야에 73회 164명이 참여했고 시설지원 4회 17명, 자매결연 16회 22명이 참여했다.

이밖에도 송우리에 살고 있는 새터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본인인 새터민에게 의정부성모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검진 결과 백혈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밤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또 포천의료원과 연계해 공공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세대당 보험료가 1만4천원 이하인 시민중 본인 부담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60세대를 등록해 포천의료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이강이 사회봉사단은 제과제빵 봉사단인 구절초회와 연계하여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3월 공단차원에서 창단한 사회봉사단은 정홍식 포천시지사장 부임이후 2006년도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업무시간을 활용한 봉사활동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시지사는 이러한 사회봉사외에도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회봉사활동도 있다. 이른바 노인건강운동이다. 고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게 하여 건강나이를 연장하고 보험급여비를 절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며 1월부터 12월까지 3~4개월씩 3차례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1개소당 등록인원 15명 이상씩 운영하고 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주거지 내 노인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동일년도 동일시설은 1번만 운영하고 강습시설은 1~4월, 5~8월, 9~12월 등 기간별 교체 운영하고 있다. 고전무용, 가공, 웃음치료 등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강의의 통해 전달하고 있다. 호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특히 고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간호사 2명을 채용하여 장기만성질환 등을 상담하고 있다. 필요한 자료 검색은 물론 건강보험에 대

한 궁금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정관중 간사는 사회봉사단의 활동에 대해 "평소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해소되는 것 같다"며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봉사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홍식 건이강이 사회봉사단장은 "처음에 부담해서 보니 휴일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평일 근무시간으로 봉사활동 시간이 늘어난 것 같다"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격과 맞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시지사는 지난 9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4개월간 만성질환자 도우미 운영 시범지사로 만성질환자를 개발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대상인원은 20명으로 관리대상 1인당 최소 월1회 방문상담하고 의사의 치료지시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교육,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올바른 의료이용 지도, 환자 가족의 지지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28 신명모터

우수한 기술력을 주무기로 하는 신명모터



대표 권오룡

가정에서나 산업 현장에서 모터의 역할과 중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듯 일상생활에도 매우 필요한 기기임에 틀림없다.

모터의 종류는 단상모터와 삼상모터로 나뉘어 있으며 특징으로는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해 주며 모든 기기의 심장과 같은 중요한 기기로 전기를 연결하면 회전·운전하면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모터의 기능은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는 모터,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모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모터로 다양한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다.

고객이 만족 할 수 있는 깔끔한 일 처리,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격과 서비스 면에서도 타 업체에 뒤지지 않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를 통한 고객들과의 후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위 국어 동지를 쓴 신명모터는 소·대형 모터, 고·저압 모터, VS 모터, 산업용 모터에서 각종 특수 모터와 건조기용, 공작기계용, 냉각탑용, 펌프용 등 다양한 모터를 고객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수리하며 입지를 굳히고 있다.

또한 신제품 및 중고 모터가 필요한 고객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이상 발견 시 대체할 수 있는 각종 부품도 다량으로 준비해 놓아 구입부터 수리까지 모든 고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권 대표는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포천지역 경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여 년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만성적자와 부도로 인해 업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모터사업도 이들 업체 수에 비례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루 빨리 모든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불황타격을 위해선 철저한 고객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즉,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 고객만족·가격만족·서비스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고

모터 수명 연장에는 '철저한 관리'가 중요  
깔끔한 일 처리·합리적인 가격이 경쟁력

신명모터(포천시 자작동 226-8 대표 권오룡)는 LG·한일 등 각종 모터를 취급하며 자동차·심정모터·인양설치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권 대표는 고객들에 대한 신뢰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수중모터·특수모터·V.S 모터·감속기 수리·AC·DC·브로워 수리·호이스트 수리 등을 약 20년 동안 다루었다.

다년간 기사생활을 거치면서 노하우와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모터만을 다루는 경력이라 이 분야에서 실력 있는 기술자로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객의 유대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신명모터는 산업현장이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터를 견적부터 시공, 설치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모터하면 신명모터를 떠올리게 한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략으로 권 대표는 모터수리만을 자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 오늘날 고객들에게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031)531-8771, 533-8771 HP.011-684-8771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신명모터는 LG·한일 등 각종 모터를 취급하며 자동차·심정모터·인양설치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행복한 보험이야기 9

한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

말기 신부전증에 이어 말기 간 질환은, 간질환 중 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간경화증이다. 말기 폐질환은 폐질환 중 만성적인 호흡기능상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이다. 평상시 대기 중에서 FEV 1 검사 결과 정상에 측치의 25% 이하인 상태이다.

(FEV 1- 폐활량) 지금까지 한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 중,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으리라 본다.

▶C.I 기능이란? 동아일보 2005년 9월 12일자에

서 '여성평균수명 길어져 질병치료비 폭 준비...'이란 타이틀로 여성의 노후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비참해질 수 있다 라고 한 기사를 보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긴 데다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한다. 특히 홀로된 여성 노인의 경우 급작적인 문제로 곤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긴 여성 노인의 의료비가 남성 노인에 비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은 편안한 노후생활을 겨냥한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인 사망 후 자녀나 배우자인 남편 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보다는 자신이 살아 있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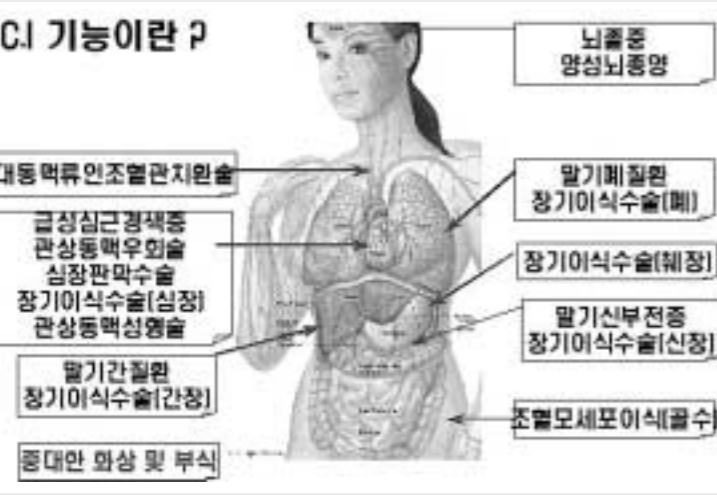
물론 남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것을 대비하여 나 own 상품이 C.I라는 종신보험의 일종이면서 종합보장되는 선진국형

보험 상품이 있다. C.I(Critical illness, 치명적 질병)보험은 암과 같이 치명적인 질병 등 앞에서 언급한 질병 등에 걸릴 경우, 주 보험에서 80%나 50%를 즉시 선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러므로 치료비는 물론 생활자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보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6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5명중 1명이며 35세 남자를 기준으로 80세 이전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수술 받을 확률은 53%이다. 35세 남자가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은 78.7%, 그렇다면 80세 이전에 중대한 질병에 걸릴 확률은 몇%일까? 그것은 무려 81.7%로 나타났다.



이미정 금융생명 경인지역본부 포천지점 매니저 010-3023-0065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하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 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장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 관계인 또는 경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신이 많

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장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재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자료제공: 의정부세무서 세원연리4과 870-4484-4487/4502-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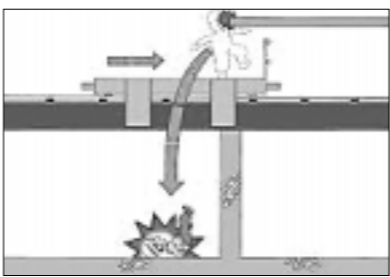
천장크레인 점검 작업 중 추락

▶재해발생개요

2006년8월 00일 경상북도 소재 00산업 선박부품 제조현장에서 크레인 정비원 근로자 인 파제자가 천장크레인 월간 정기점검을 위해 크레인 거더 상부에서 작업중 주행방향과 반대로 걸어가던 중 벽면과 고정 설치되어 있는 빔을 파이프에 부딪치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재해발생원인

- 가. 크레인 거더 상부의 고서작업시 안전조치 미흡
- 재해 당시 파제자는 안전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간간이 있는 안전한 장소가 아닌 벽면의 위험한 장소에서 다른 방향을 보고 이동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 및 인식 결여.
나. 크레인 점검 작업중 안전수칙 미준수
- 크레인의 수리/점검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중에도 안전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나 작업지시서의 안전작업 지시사항에 명시된 안전대 착용의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음.
다. 근로자가 통행하는 곳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조치 미 실시
- 근로자가 통행하는 위험장소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 미 게시
- 파이프 등의 배관 설치 시 근로자의 머리 또는 신체 일부가 충돌/접촉하지 않도록 적정높이(1.8m이상)에 설치.



▶동종재해 예방대책

- 가. 크레인 거더 상부 등의 고서작업시 안전조치 실시
- 고서작업시 안전대 등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간간이 미설치된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 및 의식화됨.
나. 크레인 점검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 크레인의 수리/점검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중에도 안전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업 다. 근로자가 통행하는 곳에 대한 안전조치 철저
-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조치 실시
- 근로자가 통행하는 위험장소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 게시
- 파이프 등의 각종 배관 설치시 근로자의 머리 또는 신체 일부가 충돌/접촉하지 않도록 적정높이(1.8m이상)에 설치.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대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률은?

각각 4.5%씩 절반 부담

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1999년 4월 분부터 퇴직금 전환금 제도가 폐지되고 노·사간 각각 4.5%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는 사용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납부한다. 사업장 가입자가 월중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월 보험료는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속 가입중인 자가 9월 3일 퇴사한 경우 가입자의 자격상실일은 4월 1일이 되며, 연금 보험료는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상실일의 전날에 속한 달까지 납부해야 되므로 4월 분까지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 담당자는 입·퇴사자가 있을 경우 보험료납부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다. 한편 국민연금법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 연금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법은 근로자가 내야 할 연

금 보험료를 초과해서 월급에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한다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을 기피할 목적으로 임금 인상에 소극적일 경우 사용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당사자인 근로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다. ▶퇴직금전환금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납부한 금액. 이미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사 031-544-8700